

지구촌 테러 경계령... 美·英, 보안 대폭 강화

보스턴 마라톤 참사에 비상작전센터 가동

NFL 경기 연기... 英 21일 런던마라톤 강행

미국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15일(현지시간) 잇단 폭발사건이 발생하면서 미 주요 도시와 영국 등이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A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로스앤젤레스(LA) 경찰 당국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주요 장소에 대한 특별 경계를 지시하고, 특히 이날 밤 LA 다저스의 프로야구(MLB) 경기 등 주요 스포츠 경기장의 보안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LA 카운티 보안관 대변인은 경찰 당국이 비상작전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학교나 주요 건물 순찰을 확대하고 인근 주요 공항에도 특별경계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LA 경찰은 또 주요 항구의 수화물 검사를 강화했다.

LA 뿐 아니라 워싱턴DC와 샌디에이고, 라스베이거스, 애틀랜타 등 주요 도시의 경찰도 보안조치를 보강했다.

폭발 참사가 일어난 보스턴에서는 21일 티디 가든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프로풋볼리그(NFL) 보스턴 브루인스 경기를 전격 연기했다.

그러나 흑인으로서 최초로 MLB에 진출한 재키 로빈슨을 기념하기 위해 미 전역에서 열리는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뉴욕 경찰도 폭발사건 직후 호텔 등 주요 건물에 주요대응팀(CRT)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들은 이와 함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통해서도 수상한 행동을 봤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9·11사태 이후 만들어진 위험평가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새크라멘토의 관리들이 연방 당국이 보내온 위협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국토안전부 비밀수사국은 백악관 주변 경계를 강화했고, 펜실베이니아 도로와 주요 진입로를 차단했으며, 매사추세츠주와 뉴햄프셔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검토·검색을 강화했다.

이달 28일 열리는 '올라호마시티 메모리얼 마라톤' 대회도 보안 방안이 재검토된다. 이 대회는 160여 명이 숨진 1995년 올라호마시티 폭탄

테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다. 행사 주최 측은 곧 연방 수사기관·지역 경찰과 함께 보안 계획의 수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경찰은 또 오는 21일로 예정된 런던 마라톤을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보안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영국 경찰 대변인 역시 대회 주최 측과 경계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보안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쟁터 방불’ 보스턴 마라톤 폭발 현장

1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마라톤대회 결승선 근처, 피가 낭자한 폭탄테러 현장에 부상자들이 쓰러져 있고 유리 파편 등 잔해도 어지럽게 널려 있다.

한미 정상 내달 7일 백악관서 첫 회담

차대통령 내달 6~8일 방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7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15일 발표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는 것 외에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과 미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라운드테이블,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또 워싱턴 방문에 앞서 5~6일에는 뉴욕을 찾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면담하고 뉴욕 지역동포 간담회를 한다. 이어 8~9일에는 로스

앤젤레스를 방문해 LA시장 주최 오찬과 동포 만찬간담회 등의 행사를 한 뒤 10일 오후 귀국한다.

이번 방미는 한미 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과의 안보 동맹관계는 물론 외교·경제적 협력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정상회담 의제에 한반도 안보위기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비롯해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폭넓게 담길 것 이란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국제무대에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성과와 새로운 협력 관계 발전방향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관련 공조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정부 복지 지자체 4년간 18조 추가 부담”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세·지방세 감면율 축소해야”

박근혜 정부의 확대된 복지공약의 실행을 위해서는 오는 2014~2017년간 지방자치단체가 18조원을 가까운 복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정부 보조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10%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16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복지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개원 2주년 기념 정책세미나에서 김원규 연구원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을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지방비 규모 1000억원 이상(2012년 기준) 11개 사업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복지

확대로 인해 지방이 추가로 져야하는 재정적 부담은 2014~2017년간 연평균 약 4조 4700억원 정도, 4년간 17조 8900억원의 복지비용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9.5%에서 10.7%로 1.2%p 높아지고, 세출 대비 의존재원의 비중도 43.2%에서 46.5%로 상승해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기됐다. 하승식 연구원은 “기존 매칭형 국고보조를 체계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능력을 전제하고 있으나 많은 지자체가 추가적인 매칭능력을 소진했다”며 “단기적으로 보조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의 재량이 발휘될 수

없는 중앙정부에 의한 의무적 자격급 여사업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연구위원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이 필요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국세·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재원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가에 의한 지방세법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해 조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임의세 확대,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조세에 의한 감면 축소 활성화, 지방세제협의기구 설립·운영, 지자체의 자주재원확충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시·군 지방채 6천억 육박

목포 1022억 최대, 완도 0원

전남지역 일선 시·군의 지방채 총액이 6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22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은 5902억원으로 시군당 평균 268억원에 달했다.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 지역 지방채는 3292억원, 17개 군 단위 지역의 지방채는 2610억원이다. 시·군별로 목포가 10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974억원), 순천(658억원), 신안(593억원), 나주(39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억원 미만 지자체는 고흥(62억원), 강진(76억원), 함평(81억원), 곡성(93억원), 담양(95억원) 등 8곳이다. 완도는 채무액이 0원으로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채무 제로’ 지자체를 기록했다. 전남 시군의 지방채 규모는 지난 2011년말 7019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117억원을 상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방 정가

이춘문, 신설 야구장 협약 대척 촉구

이춘문(무·서구 1) 광주시의원은 16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야구장 신축이 시민의 오랜 숙원으로 기아차의 출자가 없었으면 경기장 신축이 쉽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하지만 협약내용에 문제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협상이 가능하면 즉



각 협상에 임하거나 최소한 재협상의 명확한 이행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순익평가위원

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2년 후 재협상이라면 재반사항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자영업 전담부서 설치 시급”

김보현(무·서구 2) 광주시의원은 16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준비성 없는 창업으로 인해 광주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이 전국 평균(95.9%)을 웃도는 99.3%”라며 “자영업 전담부서 설치와 광주시의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



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보와 경쟁력 및 자금력이 취약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정부지원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U대회 성공, 대학 총장단 회의력”

조오섭(민·북구 2) 광주시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15 광주 U대회가 세계 대학생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학교 총장단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각 대학의 학생회 연석회의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



들이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구대회를 개최해 광주U대회 홍보는 물론 남북평화 및 단일팀 구성을 위한 염원을 담아 내자”고 강조했다.

서정성 “빛고을 문화관 부지 선정 의욕”

서정성(민·남구 2) 광주시의원은 16일 “빛고을문화관 부지 선정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추진위 운영까지 의욕 투성이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빛고을문화관은 광주의 오월정신을 담아내는 상징성이 있는데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이나 공청회 한차례 없이 결정



했다”며 “지역 문화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선정할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오는 24일 빛고을 문화관 건립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제과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고액대출환영
- ▶사업자금대출
- ▶미준공건물
-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빌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급매매

두암타운사거리 대로변

대지 **495㎡** (150평)
건물 **2205㎡** (667평)

지하1층	주차장
1층	치킨호프
2층	PC방
3층	독서실
4층	학원
5층	골프존
6층	주택

매매가격 25억
대출 10억
보증금 4억3천
현금인수 10억 7천만

대출이자 공제후 월 1,000만원수익
사정상 급매(가격절충가능)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나주 혁신도시의 모든것 솔로몬과 함께 하세요!!

중심상업지역(위치최고·착한가격)
• 대지 108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99㎡ - 매매가 24억2천
• 대지 705㎡ - 매매가 14억5천
• 대지 1200㎡ - 매매가 24억5천
• 대지 1080㎡ - 매매가 26억5천
외 다수물건

근린생활용지(위치최상·착한가격)
• 대지 688㎡ - 매매가 13억1천
• 대지 545㎡ - 매매가 10억7천
외다수물건

점포주택용지(약 100필지 보유)
단독주택용지(약 80필지 보유)

나주혁신도시 인근토지 구함

나주혁신도시·남평강변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

가 은 공인중개사

무인텔 급 매

- “담당” 무인텔
- 객 실 : 32개
- 현 성업중
- 매매가 상담후 결정

전남 지역 토지 구함

- 양어장(노지)
- 염전
- 잡종지
- 학교용지(폐교)

각 토지 매수자 대기중
※ 염전 실운영자 대기중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중랑공인중개사

♣임대입 하실분
☆평등공단원 준공업지역
공장건물
대지 1,800㎡(544평)
건물 1,690㎡(510평)
보증금 7천만원
월세 880만원
(매매가 12억7천만원)
용지5억원포함
월이자 230만원
※투자처지도 있고 관리인이 없고
수리비용이 없고 공실이 없고 장
기 계약이 되어 있어 안정된 수입
이 보장됨

♣대지.전.답
☆서구 세하동 2차선 도로점
주거지역 답 12,522㎡(763평)
매매가 평당 150만원
(물류창고 공장 적합)

♣.전원주택지
☆광산구 오문동97번
시내버스종점
전원주택지(전망좋은)
전2,436㎡(737평)
매매가 평당 27만원
♣총장로에 대형 건물 및 대형
매장 필요하신분 상담 환영
합니다.

062-374-5945
010-3162-4989

대인동심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남게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8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항사거리편)